

사랑터

제1684호

부활 제 4주일

2020년 5월 3일

주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화: 345-7086(사제관)/343-2446(수녀원)/343-2018(사무실)/345-2357(FAX)

미사안내(월) 6:30, (화) 19:30, (수) 10:00, (목) 19:30, (금) 10:00, (토) 18:30특전 (일)6:30,10:30

■ 종교시설 준수사항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출입시 손 소독 및 발열 체크, 출입자 명단 작성(주일만 본당은 바코드 명찰 이용함, 명찰 미 소지시 명단 수기 작성 필수)
- 미사시 1-2m 거리두기(가족은 함께 앉기 가능), 단체 음료와 음식 나눔 중지
- 사도직 단체의 모임과 행사, 주일학교 미사와 교리는 초중고 등교일 까지 연기

■ 미사 참석 의무 면제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신자, 노약자, 어린이, 발열자, 호흡기 이상자
- 위에 해당되는 신자는 공소예절을 하거나, 방송미사, 묵주기도, 선행 등으로 대신
- 전입을 환영합니다.
- 3구역 장복반(이진용 베드로님)
- 6구역 설편큐브(방동혁 바오로님)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5월 3일 (부활 제 4주일)	5월10일 (부활 제 5주일)		
특전 미사	해 설	배점미 안나	최옥영 M.막달레나		
	1독서	임순자 안나	이가희 소피아		
	2독서	권미라 리오바	배운주 안젤라		
새벽 미사	해 설	변은숙 M.막달레나	황숙자 베로니카		
	1독서	송계용 바오로	김관곤 오네시모		
	2독서	이상희 로사	황복자 마리아		
교중 미사	해 설	손 요안나	김재실 에바리스또		
	1독서	이경자 유스티나	한상배 바오로		
	2독서	김정자 비비안나	권미라 리오바		
화 답 송		 주 님 - 은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5월 4일(월)	5월 5일(화)	5월 6일(수)	5월 7일(목)	5월 8일(금)
해설	황숙자 베로니카	도정숙 메히틸다	한선주 제노베파	차화선 스텔라	정미화 M.막달레나
독서	서희원 마리아나	성실하신 모후	구세주의 모후	인자하신 동정녀	애덕의 모후

5월 3일 (부활 제 4주일)	미사안내	총무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사도들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4/27(월)-5/3(일)	사목협의회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주양원(요셉) 후 :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5월10일 (부활 제 5주일)	미사안내	사회복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사도들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5/4(월)-5/10(일)	6구역 주호, 월림반
	차량봉사(좌곤리)	최효찬(프란치스코)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박안홍(시몬) 후 :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성모성월 고리기도 일정표 (월,수,금,일 - 19:30분 / 화,목,토 - 미사 후)							
일자	요일	주 송 팀	비고	일자	요일	주 송 팀	비고
5/1	금			5/17	일	하늘의 문	
5/2	토			5/18	월	평화의 모후	
5/3	일			5/19	화	성실하신 모후	
5/4	월	꾸리아		5/20	수	자비로운 모후	
5/5	화	정의의 거울		5/21	목	1구역	
5/6	수	사랑하올 어머니		5/22	금	2구역	
5/7	목	순교자의 모후		5/23	토	3구역	
5/8	금	천상의 모후		5/24	일	4구역	
5/9	토	신비로운 장미		5/25	월	5구역	
5/10	일	구세주의 어머니		5/26	화	성모의 밤	
5/11	월	인사하신 동정녀		5/27	수	6구역	
5/12	화	겸손하신 모후		5/28	목	연령회/요셉회	
5/13	수	순결하신 모후		5/29	금	성가정회/자모회	
5/14	목	애덕의 모후		5/30	토	제대회/성모회	
5/15	금	그리스도의 어머니		5/31	일	젬마회/체나폴로기도회	
5/16	토	사도들의 모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교무금 : 4월24일(금) - 5월 1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심상봉(사도요한)	4	이춘악(테레사)	4	김희덕(바오로)	4												
김수천(스테파노)	4	양재연(젬마)	3-4	김순교(글라라)	3-5												
김선미(베로니카)	3-4	서춘자(그라시아)	4	이수예(M.도미니카)	3-4												
정상중(벤자민)	2-3	김영현(요셉)	4-6	이화자(안젤라)	4												
김선희(베아다)	4	백죽엽(예로니모)	4	장희주(아가다)	4												
노영곤(도미니코)	3-4	송종식(율리아노)	4	신희락(요아킴)	5												
박도연(보나)	1-6	백현국(사도요한)	4	노현식(프란치스코)	2												
지영갑(안드레아)	5	손혜정(소화테레사)	8														
교구사업모금 : 4월24일(금) - 5월 1일(금)																	
심상봉(사도요한)	4	양재연(젬마)	3-4	김선미(베로니카)	3-4												
신희락(요아킴)	5	지영갑(안드레아)	5														
■ 용원성당 기금(2/24~5/1)			<table><tr><th colspan="2">주일 미사 참례자수 : 명</th></tr><tr><td>교무금</td><td>2,682,000원</td></tr><tr><td>주일헌금</td><td></td></tr><tr><td>교구사업모금</td><td>190,000원</td></tr><tr><td>성소후원금</td><td>120,000원</td></tr><tr><td>용원성당 분담금</td><td></td></tr></table>			주일 미사 참례자수 : 명		교무금	2,682,000원	주일헌금		교구사업모금	190,000원	성소후원금	120,000원	용원성당 분담금	
주일 미사 참례자수 : 명																	
교무금	2,682,000원																
주일헌금																	
교구사업모금	190,000원																
성소후원금	120,000원																
용원성당 분담금																	
김명호 마르티노(완)	이승옥 요엘(완)																
지영갑 안드레아(8-9)	김정미 루치아(완)																
노종수 요셉(1회)	조신호(완)																
서원미 엘리사벳(완)	박재현 요한보스코(완)																
허명철 스테파노(1회)	김옥자 안젤라(완)																
김승만 베네딕도(완)	김병찬 바오로(완)																
-기간: ~ 2020년 4월 30일 -분담금 57,700,000원(교무금 4개월분 납부) -불헌 누계: 47,482,000원(199세대)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입금시에는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양식]

연옥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구원의 희망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과 그릇된 점을 벗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영원한 행복인 천국에 들어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분이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은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뒤에 이러한 결점을 정화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연옥”이라 한다. “연옥”이라는 말이 성서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옥에 대한 인정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교회의 전통이며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심판에 근거를 두었던 확신이다. 연옥에 관한 교리는 1439년 “폴로렌스 공의회”에서 설정하였으며 “연옥은 일생동안 하느님께 저지른 죄를 보속하여 치루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악의 해부

일요일 오전, 자동차 경주 중계를 본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사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자동차 경주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서로 충돌하거나 어디에 팡 부딪히기를, 하다못해 가드 레일 노릇하는 건초더미에라도 부딪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요일 오후, 권투 시합 실황 중계를 본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어느 쪽도 다치는 일이 없이 시합이 무사히 판정승으로 끝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펀치에 봉 뿔다가는 팡 떨어지기를, 하다못해 어느 한쪽이 통쾌한 케이오 승을 거두기를 기다린 것이 분명하다. 내 안에 악마가 하나 들어 있기 때문일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유감스럽게도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렇게 믿었던 모양이다. “너희가 선을 지향하거든, 먼저 너희가 악하다는 것을 믿어라.”